

신안군 신설 5개 임시기구 예산 지원 전무 '유명무실'

각종 행사·사회단체 지원과 대조 논란

신안군이 각종 행사와 사회단체 등에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농산물 유통추진단을 비롯해 최근 설치한 5개 임시기구에는 업무추진 예산을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신안군은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병어축제를 비롯 개매기축제, 해변모래체험축제, 민어축제, 섬갯벌올림피축제 등 지역에서 열리는 각종 축제

에 모두 3억2천500만 원의 군비를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 명목으로 지원했다.

군은 또 신안군체육회 등 관내에서 운영되는 24개 사회단체에 운영비 명목으로 4억4천800만 원을 보조했으며, 최근 비급면 해변노래자랑과 도초면민 노래자랑 행사 등에 각각 1천만 원씩 지원했다.

군은 이와 함께 나머지 12개 읍·면

에서 열릴 예정인 각종 노래자랑 행사에도 각각 1천만 원씩 총 1억2천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군은 그러나 최근 신설된 '가보고 싶은 섬추진단'을 비롯 교통개선추진단, 교육지원단, 농산물 유통추진단, 기획홍보담당관 등 5개 임시기구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군은 이들 5개 기구를 신설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직원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해 설치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사무관 3명을 비롯 6급 5명, 6급 직무대리 2명, 농업 7급 1명, 기능

8급 1명, 계약직 2명 등 총 14명이 근무하는 농수산물 유통개선단과 교육지원단, 가보고 싶은 섬추진단 등에는 단장인 사무관급 공무원의 관공비는 물론 직원들의 출장여비도 전혀 책정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지난 5월 신설된 철새관리계에는 철새연구소 지원을 비롯 철새생태에 관한 업무를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8천965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주민 김 도씨(58·압해면 학교리)는 "군수가 '농어민을 위한다'며 관계 규정을 무시해가면서까지 5개 임시기구를 신설하면서도, 정작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의회 이재환의장은 "신설된 임시기구는 원칙과 규정을 무시한 것"이라며 "오는 9월 2차 추경 때 군에서 운영비 예산을 요구해 오면 전액 삭감처리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신설된 5개 임시기구가 무용지물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안=조남필기자 wncho@

광양 자유무역도시 건설 박차

조직개편안 의결...1 담당관·4과·2사업소 증설 'U-City 정책과' 신설 등 지역산업 고도화 기대

광양시가 자유무역도시 건설을 위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광양시의회의는 지난 10일 공무원 정원을 현재 864명(기능직 포함)에서 905명으로 41명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광양시 조직 개편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안 확정으로 감사평가 담당관실과 U-City 정책과, 하수과, 도시개발사업소 등 1담당관 4과, 2사업소가 증설돼 동북아 자유무역도시와 U-City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 체계를

강추게 됐다. 또 농업분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매실브랜드화 추진 전담기구인 매실특작과, 산업단지 확대와 도시 정주기반 확대를 위한 도시개발사업소, 공원녹지사업소가 신설됐다.

특히 U-City정책과 신설로 광양만권 IT연구소 설립과 연계한 지역산업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양시는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대비, 지난 2005년 10월부터 2006년 4월까지 6개월간 한국지방행정

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체부서를 대상으로 업무량과 정원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

광양시는 앞으로도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조직 진단을 정례화하는 한편 기업지원 전담부서와 서울 사무소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과 단위기구 7개와 정원 41명이 증원됐으나 시정경영진단결과 보고서가 밝힌 광양시 공무원 적정인원 920명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지난 95년 도·농통합(동광양시+광양군) 당시 991명과 비교하면 91%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광양=김종호기자 chkim@



지난해 9월 문을 연 나주 천연염색문화관에 우리 고유의 천연염색 과정을 체험하려는 탐방객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천연염색의 신비를 체험하세요" "나주 천연염색문화관"이 최근 친환경 웰빙 바람을 타고 천연 염색 과정을 체험하려는 일반인들이 몰리고 있다.

지난해 9월 다시면 회전리에 문을 연 나주 천연염색문화관은 천연 식물이나 광물에서 색소를 추출해 우리 고유의 색을 염색하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노동부가 지원하는 '지역

천연염색 신비 속으로

'나주 염색문화관' 체험 프로그램 인기

용 인적자원개발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돼 천연염색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 40여명을 대상으로 천연염색을 활용한 창업 과정반을 개설했다. 이들은 요즘은 천연염색 문화관

앞 농경지 3천600여평에서 '쪽'을 수확하느라 구슬 땀을 흘리고 있다.

이밖에 매주 1천여명이 천연염색을 체험하기 위해 이곳을 방문하는 등 탐방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장흥계 관장은 "천연염색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천연염색 산업을 진흥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며 "현재 운영비를 나주에서 지원받고 있는 상태이지만 조만간 독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나주지역은 바닷물이 함유하는 염산강 하루가 위치해 있고 쪽과 뽕나무 재배를 많이 해 천연염색의 최적지로 알려져 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내가 군수라면...

담양군, 군정 발전 학생 아이디어 공모

담양군이 군정 발전을 위해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내가 군수라면'을 주제로 지역개발과 문화관광, 농가소득 증대, 복지, 자치행정 등 총 5개 분야로 나누어 실시된다.

담양군 내 초·중·고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10월 9일까지

군 홈페이지(www.damyang.go.kr) '제안합니다' 코너와 우편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접수할 수 있다. 군은 11월 중 분야별 담당부서 검토와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제안자 30여 명을 선발해 군수표창과 부상을 줄 방침이다.

담양=차재희기자 jhwha@

담양 수북농협 품질경영대상 수상

자금 5억원 지원받아

담양 수북농협(조합장 문규선·사진)이 최근 농산물 판매사업과 유통혁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농협중앙회로부터 '농산물 품질경영대상'을 수상했다.

수북농협은 올 상반기까지 양곡 60억원과 쌀기 21억원, 토마토 21억원, 멜론 9억원, 단감 4억원 등 총 121억원의 농산물 판매 실적을 올렸다.

특히 우렁이 농법을 이용해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120ha를 경작, '우렁이가 사는 대숲마



을 쌀'이라는 자체 브랜드로 수도권 지역 대형유통업체, 농협유통 등에 전량 납품하고 있다.

또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을 위해 멜론·토마토를 중심으로 담양군 농산물연합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이번 수상으로 수북농협은 유통활성화 자금 5억원을 지원받는다.

담양=차재희기자 jhwha@

"광산을 자전거 천국으로"

광산구가 다음달부터 '범국민 자전거타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구는 자전거 이용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출·퇴근 및 통학, 시장보급 등에 자전거 이용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으로 자전거 붐 조성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전담 직원 배치 ▲인프라 확충 등에 나선다.

특히 각종별 자전거 동호인을 모집하고, 무료 수리센터 및 대여소를 운영한다.

또 자전거 이용자에게 각종 대금과 수강료 등을 할인해주는 인센티브 지급도 검토하는 등 교통분담을 25% 수준까지 자전거 이용률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위해 오는 2009년까지 28억원을 투입해 영산강·황동강변 10km에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고 폭 3.5m이상 보도에도 자전거 통로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송산유원지, 운남공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공원에 2012년까지 자전거 트랙을 설치하는 한편, 지하철역 주변과 다중이용시설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다. 이밖에 아파트 등 공공주택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학교에도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광산구는 34개 노선 84km의 자전거 도로와 55개소의 자전거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난

2000년 광주 최초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조례를 제정해 바 있다.

전갈길 구정장은 "광산구는 지역이 평탄하고 관련 기반시설이 풍부해 자전거 타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며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안전시설 및 전용도로를 대폭 확충해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



해병전우회 정화 활동

해병대 화순전우회(회장 서금용)는 12일 화순을 화순천 일대에서 수중 정화활동을 벌였다. 이날 수중 정화활동에는 해병대 전우회원 50여명이 참가해 각종 오물과 쓰레기 2을 수거했다.

수중 정화했다. 나주 A 여행사 대표 이모(46)씨는 "나주시가 표면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면서도 관내 여행사보다 외지 여행업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에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여행사 선정은 여행사 대표들이 결정했으나 문제가 제기돼 백지화했다"며 "나주지역 여행사들만을 대상으로 제안서를 제출받아 여행사를 다시 선정할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여수 장애인복지관 내년 개원

연면적 1,708㎡ 규모 시설 개선 착수

여수지역 장애인 1만6천여명의 오랜 숙원사업인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내년 개원된다.

여수시는 최근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여수시 종합사회복지관을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시설 개선에 착수했다.

시는 지난 1회 추경때 리모델링 공사에 5억원을 확보하는 등 관련시설을 개·보수해 내년 초 새롭게 문을 열 예정이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여수 미평동에 대지면적 5천707㎡, 연면적 1천708㎡ 규모로 한계면에 200명이 이용

할 수 있는 장애인 재활시설이다. 1층에 언어치료실과 아동 특수치료실, 상담실, 샤워실, 강당이, 2층에는 직업재활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정보화교육장 등 9개 시설이 들어선다.

또 경사로 미끄럼방지 및 복도 핸드레일,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게 된다.

여수시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문을 열면 언어치료를 비롯해 심리치료, 의료재활, 물리치료 등 재활치료사업과 교육재활사업, 재가장애인복지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여수=박영규기자 ykpark@

강진청자 공모전 대상 최인규씨

제 7회 대한민국 강진청자 공모전에서 최인규(경기도 이천)씨의 '청자상감어문유개호(사진)'가 대상에 선정돼 문화관광부 장관상과 함께 1천만원의 상금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또 최우수상(전남도지사상)에는 '청자당초문투각어문항아리'를 출품한 이효복(강진)씨가, 우수상(강진군수상)은 '청자연리문화아

리'를 출품한 김옥진(서울산업대 3학년)씨가 수상했다.

대상작인 '청자상감어문유개호'는 고려청자의 전통적인 형태와 무늬를 현대적 시각에서 재구성,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74점이 출품돼 도예계와 학계 원로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최종심사 결과 41점의 입상작이 선정됐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9월 8일 개최되는 제 12회 강진청자문화제 개막식에서 열린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